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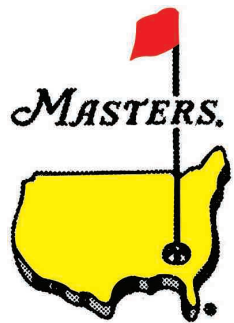
“거, 안되네...” 고개속인 우즈

버디를 놓쳐 반성하고 있는 중일까. 6일 열린 마스터스골프 1라운드 12번홀 그린에서 타이거 우즈(왼쪽)가 퍼팅 후 고개를 떨군채 앉아 있다.

/AP=연합뉴스

첫날부터 신진들의 반란

우즈 15위로 출발 저조 ... 최경주·양용은 28위



대회 첫날은 신진 세력의 약진이 돋보인 가운데 타이거 우즈(미국)의 관정승이었다.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7천44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브렛 웨더릭(미국)이 3언더파 69타를 때려 공동 선두에 나섰다.

올해 27세의 로즈는 17세 때 브리티시오픈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한때 골프 신동으로 불렸던 선수. 로즈는 까다로운 오거스타내셔널의 그린을 영리하

‘타이거와 필’의 대결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막을 올린 ‘골프 명인 열전’ 마스터스골프

게 요리하며 보기없이 버디만 3개를 뽑아내는 깔끔한 경기를 치렀다.

지난 달 26일 월드골프챔피언십시리즈 CA챔피언십에서 우즈에 2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웨더릭은 난생 처음 알아보는 마스터스 무대에서 다섯 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다.

2년만에 그린 재킷 탈환에 나선 우즈는 버디 2개에 보기 3개를 곁들이며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15위라는 그저 그런 성적표를 받았다.

눈에 띄게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친 우즈는 17번(파4), 18번홀(파4)에서 잇따라 드라이버샷이 숲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2타를 잃은 것이 아쉬웠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이번까지 모두 11차례 마스터스에 출전한 우즈는 1라운드 성적에 늘 좋지 않았다. 언더파 스코어를 낸 적은 네번 뿐이고 60대 타수를

기록한 적은 한번도 없었기에 우즈로서는 신나는 첫날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탐색전을 마쳤다는 평가.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작년 챔피언 필 미켈슨(미국)이 4오버파 76타로 부진, 공동43위로 밀린 것은 우즈에게는 ‘굿 뉴스’였다. 작년처럼 드라이버를 2개나 챙겨 나온 미켈슨은 티샷이 숲이나 페어웨이 벙커에 자주 떨어지면서 버디 4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6개를 쏟아내 타이틀 방어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나란히 3오버파 75타를 쳐 공동28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살인적인 빠르기에다 맑은 날씨 때문에 한결 단단해진 그린 탓에 언더파 스코어를 낸 선수가 9명 밖에 나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실망스러운 성적은 아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3점포 ‘땡’... 시즌 2호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포가 열흘만에 폭발했다.

이승엽은 6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3-0으로 앞선 4회말 2사 1,2루에서 상대 선발 시모야나기 쓰요시로부터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3점홈런을 터뜨렸다.

지난 달 30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개막전에서 솔로홈런을 날린 뒤 홈런포가 침묵했던 이승엽은 이날 초반부터 매서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변함없이 4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출장한 이승엽은 1회 2사 1루에서 우월 2루타를 날렸고 2회에는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그러나 요미우리가 3-0으로 앞선 3번째 타석에 나선 이승엽은 볼카운트 2-1에서 한신의 선발 시모야나기의 4구째 역회전공이 가운데로 솔러자 베팅 같이 걷어올려 외야 펜스를 넘겼다.

요미우리는 이승엽의 홈런 한 방에 힘입어 6-0으로 점수 차를 벌려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박진표기자 lucky@

박지성 무릎 부상 또 ‘엔진’ 꺼지나

8일 포츠머스전 출전 불투명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의 물 오른 골 감각이 뜻밖의 무릎 부상으로 ‘점표’를 찍을 전망이다.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맨유는 8일(한국시간) 새벽 1시15분 포츠머스와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포츠머스는 현재 11승10무10패(승점43)로 리그 9위를 달리고 있는 중상위권 팀이지만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 1득6실)을 기록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원정경기지만 정규리그 7연승을 달리고 있는 맨유로서는 연승가도를 달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정규리그 두 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며 팀의 연속 행진에 한몫했던 박지성의 출전 여부는 무릎 타박상으로 여전히 안갯속이다.

1일 블랙번 로버스전에서 시즌 4, 5호골을 몰아쳤던 박지성은 오른 무릎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현재 무릎 부위 정밀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박지성은 5일에도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해 땀을 흘렸다. 통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규리그 7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는 설기현(28·레딩FC)은 팀의 주전 공격수인 글렌 리틀(32)이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마감하면서 선발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최근 6경기 연속 무승(2무4패)에 빠진 레딩은 7일 오후 11시 리버풀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

‘더블보기’ 최경주 “갤러리 재채기 탓”

‘골프 명인 열전’ 마스터스에 다섯번째 출전한 최경주가 1라운드를 3오버파 75타로 마친 뒤 “18번홀 더블보기는 갤러리의 재채기 소리 탓”이라고 밝혔다.

18번홀에서 두번째샷을 그린 옆에 가져다놓은 최경주는 세번째샷이 뒤땅을 맞으면서 벙커에 빠지고 말았다. 벙커에서 탈출한 최경주는 그러나 3m 거리의 보기 퍼트를 넣지 못해 1라운드 마지막홀을 더블보기로 마무리지를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끝난 뒤 최경주는 “세번째샷을 치려고 백스윙을 하는데 돌러싸고 있던 갤러리 가운데 누군가가 재채기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최경주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갤러리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췄는지...”라며 농담까지 던지는 여유를 보였다.

최경주는 “그런대로 플레이가 괜찮았다”고 자평하고 “18번홀에서 파나 보기로만 막았어도 아주 만족할 성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경주는 “바람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통에 거리 측정이 아주 어려웠고 그린은 정말 딱딱하고 빨랐”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더파 스코어를 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주와 같은 75타를 친 양용은 “좋은 경험을 했다. 이제 겪어봤으니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첫날 성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소감을 내놨다.

/최재호기자 lion@

서재응 ‘불펜이 미워’

양키스전 등판, 첫승 실패

‘컨트롤 아티스트’ 서재응(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올해 첫 등판에서 불펜 난조로 승리를 아깝게 놓쳤다.

서재응은 6일(한국시간) 뉴욕 양키스타움에서 열린 양키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6¼이닝 동안 안타 11개와 볼넷 1개로 4점을 내준 뒤 팀이 6-4로 앞선 7회 말 1사 1루에서 교체됐지만 구원투수가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리가 날아갔다.

탬파베이는 8회 초 안타 2개와 상대투수 폭투를 겪어 1점을 뽑아 7-6으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